



농림축산식품부

동 정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4.(금)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1. 14.(금)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형식 (044-200-2231)
		담당자	서기관 손경문 (044-201-2234)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현장 점검

-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산물 수급동향 및 대책 논의 -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금) 오전,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 등으로 가격 상승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재, 인건비 부담 등으로 가격 인상 흐름을 보이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 종료 후 관계부처와 함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배, 배추, 무 등 주요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특히 충분한 공급 여력에도 가정수요 증가로 소폭의 가격 상승을 보이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2.1.24.~29. 기간 중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마리당 15만원 경감 지원(자조금단체),
'22.1.17.~29. 기간 중 돼지 상장·도축수수료(2만원/마리) 지원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김 차관은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 설 명절 기간 중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용 한도 확대(1만 원 → 2만 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20%), 중소과일 특별 할인판매(10만 꾸러미, 20% 할인), 소비쿠폰과 유통업계의 할인 행사를 연계하여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체감물가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